

### 1 문순태 신년칼럼



소설가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인생을 고기잡이에 비유했고 베케트는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기다림에 의미를 부여했다.

어쩌면 인생은 끝없는 기다림인지도 모른다. 기다림이야말로 희망의 깃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허만 뱀발은 '백경'에서 도전정신에 인생의 방점을 찍었고,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경계했다.

얼마 전에 내가 읽은 소설 '연을 쫓는 아이'에서 할레드 호세아니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말하려고 했다. 인간은 누구나 것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어하나 현실이라는 비극적인 속박의 줄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인생이란 시간의 배를 타고 끝없는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해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기항지에 도착해서, 잠시 쉬어유두 없이 닻을 올리고 다시 출항하기를 평생 동안 되풀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한다.

출항 할 때마다 꿈을 안고 희망의 보따리를 배에 가득 싣지만, 항해 도중에 풍랑을 만나 위험해질 때마다 보따리를 하나씩 바다에 던져버린다.

결국 빈 배로 기항지에 도착하게 되고 보따리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다.

우리는 2013년 호의 배를 타고 기항지에 도착했으며, 다시 미지의 시간 속으로 출항했다.

돌이켜보면 2013년 우리는 기대와 절망 속에 분열과 갈등의 긴 터널을 지나왔다. 진보와 보수, 대결로 상화하택(上火下澤)이라는 상극의 갈등사회를 만들었다.

넷글 사건으로 대선 후유증의 깊은 늪에 빠진 채, 중북불이와 공안정국의 그물에 갇혀 허우적 거린 기분이었다.

철도노조의 생존권 투쟁과 사회적 약자들의 비탄의 소리로 얼룩진 한해이기도 했다. 거기다가 북한의 불안한 정변사태와 불신의 끝이 더욱 깊어진 남북관계로,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는 요원해지고 말았다.

모든 원인은 불통과 불신,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허탈감은 우리를 더욱 절망케한다. 이 답답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불투명성으로 인해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 우리는 시지푸스의 인내와 용기로 새 역사를 쓰기 위해

## 태양은 나를 위해 뜬다

다시 도전할 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 절망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불안과 절망의 다리를 건너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 분노와 증오의 정치를 끝내고 화합과 희망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한다.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스마트 시대에 이념의 대결은 퇴역적 삶의 낡은 방식이다. 이제는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한다.

"과거의 창을 통해 미래를 보라"는 말이 있다. 과거를 잊지 말고 과거의 시간 속에 묶이지 말아야한다. 과거에 매여 있는 한 진정한 시작은 없다.

새해에는 절망을 보지 말고 희망을 향해 새로 출발하자. 우리 주위에는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 해의 시작을 단순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시작하기에 이미 늦었다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언제나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발전이 있다.

어느 날 빅틀 유고는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후배는 "50세가 되고 보니 인생이 허무해져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유고는 "50세는 젊음의 끝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나이는 노년

의 시작이 아닌가. 자네의 지난날은 인생의 연습이었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니 희망을 가져라."고 답장을 보냈다. 도도하게 흐르는 양쯔강도 남상(蓋鮑)에서 비롯된다.

술잔 하나 넘칠 정도의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하여 큰 강을 이룬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중고차를 팔아 마련한 1300불로 애플을 시작하지 않았던가. 새해에는 무엇이든 시작해보자.

해가 바뀔 때마다 시간의 흐름이 더욱 빨라지는 것을 절감한다.

마지막 시간의 미끄럼을 타고 질주하는 기분이 다. 하강에 가속도가 붙어 시간의 흐름은 더욱 빨라지게 마련이다. 이럴 때 하루, 한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로 알고 살라."는 말이 참으로 절절하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은 자꾸 떨어지지만 세상은 더욱 명징하게 잘 보이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자기중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색깔은 하나에 불과하지만 총체적 시선으로 보면 세상은 현(玄)의 빛깔, 즉 여러 가지 색깔이 조화롭게 어울려 가뭇없이 보인다.

검은 색 안에 청·홍·백·황 등 여러 색깔이 하

나 되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기만의 독법으로 세상을 보면 충돌과 대립이 따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론'에서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했다.

그러나 행복은 사과처럼 손으로 딸 수도, 돈으로 살 수도 없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각자 마음 안에서 느끼고 찾아야한다.

행복해지기 위해, 새해에는 구체적으로 꿈을 설계하여 밝은 얼굴로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조선시대 심흥(申興)이라는 학자의 인생삼락(人生三樂)을 떠올린다.

문을 닫고 좋은 책을 읽는 것이 즐거움의 첫 번째요, 문을 열고 반가운 손님을 맞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며, 문을 열고 나가 좋은 경치를 구경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라고 했다.

2014년의 태양이 밝았다. 좋은 책 읽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경치 구경하면서 여유롭게 살자. 내가 어디에 있건 태양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떠오른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이다.

우리 모두 가슴을 펴고 눈을 크게 떠 태양을 보자. 제발 올해는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소문으로 신뢰를 회복하자. 그리하여 새해에는 모두들 안녕했으면 좋겠다.

## 말바우시장·강진 마량면... 말 지명 광주·전남 154곳

국토지리원 분석, 전국 744곳

전남 142곳 최다... 광주 12곳

광주 말바우시장·마복동, 강진 마량면, 광양시 마동, 구례군 마산면 등 광주·전남지역에 말 관련 지명이 154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일 "2014년 갑오년(甲午年) 말의 해를 맞아 말과 관련된 전국의 지명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 150만여개 지명 중 744개가 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광주는 인근 비위가 말을 닦았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전해지는 말바우시장과 서구 마복동(馬勒洞) 등 12곳이 말과 관련된 지명이었다.

특히 전남은 강진 마량면(馬良面)을 비롯해 142곳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말 지명'이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양시 마동(馬洞), 구례군 마산면(馬山面), 영광군 대마면(大馬面), 해남군 마산면(馬山面) 등이었다.

말 지명으로 가장 유명한 마량면

은 강진군 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마량향은 조선시대 제주도에 공출된 조랑말이 마량에 도착해 일정기간 육지 적응시간을 보내는 목마장이 설치됐던 것에서 유래했다.

또 광양 마동은 본래 옛 골약면 지역으로 당시 마홀(馬屹)이 가장 으뜸 되는 마을이었는데 근처 산정(山頂) 모습이 말(馬)형국이라 해 마동(馬洞)이라 했고, 현재 행정동은 중동(中洞)과 마동(馬洞)의 첫 글자를 따서 중마동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 말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경북(102개), 충남(100개), 경기(86개), 경기(80개), 전북(78개), 충북(64개), 강원(54개)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대구는 말 관련 지명이 1개에 불과했고, 서울은 3개, 제주와 울산은 4개씩으로 말 관련 지명이 가장 적었다.

이런 말 관련 지명을 종류별로 나눠 비중을 보면 마을이 65%로 가장 많았다. 산(17%), 고개(12%), 섬(5%) 등이 뒤를 이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연초부터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도시가스 5.8%↑ LPG·우체국 택배도 올라

새해 벽두부터 도시가스·우체국 택배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이는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평균 5.8%(서울시 소매가 기준) 인상하기로 했다.

요금별로는 주택 취사·난방용이 5.7%, 산업용이 6.1%, 영업용(식당·숙박업 등) 5.5%, 영업용(목욕탕·패기물처리소 등)가 5.8% 각각 오른다.

역화전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높아진 데다 원전 비리 여파로 원전 가동이 일부 정지한 탓이다.

역화석유가스(LPG) 가격도 올랐다. LNG 수입·판매사인 E1은 국제 LPG 가격 급등으로 이달 프로판과 부탄 공급가격을 kg당 99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전기요금 평균 5.4%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했다.

교통요금도 들쭉일 조짐을 보인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올해 철도요금 5%인상을 내부 목표로 정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부터는 우체국 택배(소포) 요금도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2월 1일부터 고종량 소포의 요금을 500~1500원 인상하기로 하고 '국내 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안)'를 행정고고했다.

소포 우편요금 인상은 우편물 감소 등으로 인한 우편사업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2005년 1월 이후 9년 만이다. 여기에 초코파이와 폴라를 비롯한 식음료 가격도 줄줄이 올라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전남 'J프로젝트' 본궤도 올랐다

삼호지구 땅값 문제 해결... 시행사-농어촌공, 양도·양수 협약

서남해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 조성사업(일명 J프로젝트·브랜드명 솔라시도)이 최근 기공식을 한데 이어, J프로젝트 한 지구인 삼호지구의 간척지 매입 문제가 해결되는 등 전반적인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남도는 1일 "J프로젝트 삼호지구 간척지(8.7km)에 대해 최근 사업시행업체인 서남해안레저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호지구는 영암군 삼호읍 일대 866만㎡에 골프장(81개홀)과 스포츠·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삼호지구는 땅 주인인 농어촌공사로부터 간척지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땅값 문제로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농어촌공사는 개발에 따른 지가 변동요인을 반영, 도시농지 가격을 주장한 반면 서남해안레저측은 현재 상태인 간척농지로 땅값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땅값 논란은 지난해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간척농지 가격으로 결정됐다.

땅값은 3년 거쳐 7년 상환, 계약금은 양도양수 금액의 20% 등이다. 전남도는 3.3㎡당 3만원선에 양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호지구는 오는 4월까지 간척지 양도양수 절차를 마친 뒤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해남군 구성·사공·덕송리 일대 48.1km(1455만평)에 골프장과 신재생바이오 시설, 의료시설, 컨벤션센터, 마린, 휴양숙박 시설 등을 갖춘 인구 1만8000여 명 규모의 관광레저형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신협이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1599-4474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컵숟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 법인 1000억원 (중상위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 취급대출: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 미려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 전화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 광주 광역시 서구 천전로 246번길 3

도대체 스피치 **말**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출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할 분 / **강사 파견 업무** / 각 개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